

1965

# 성도의 벗



4

목 차

예언자의 말씀

젊은이들에게 갖는 나의 신뢰와

훌륭한 독서 ..... 1

당신의 질문

두려움 경외의 의미 ..... 4

있을 수 없는 사람들..... 6

상호부조회 공과

신 학 .....14

반문교사 멧세이지.....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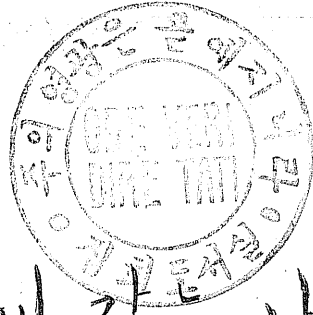
봉사의 모임 .....27

문 학 .....31

사회과학 .....40

65년도 3월 칙례자 명단 .....48

# 예언자의 말씀



“ 젊은이들에게 갖는 나의  
신뢰와 훌륭한 독서 ”

대관장 데이브 오. 베케이



나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가끔 어느 젊은이가 교회의 표준에 뒤떨어졌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겠지만 극소수인 것입니다. 교회의 젊은이들은 진리를 사랑하고 교회의 표준을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나는 젊은이들을 믿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교회에서

교사나 역원이나 또는 지도자로서 젊은이들을 인도하고 같이 일하는 것 이상 큰 행복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젊은이들에게 무엇인가 부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쁘게 이 부탁을 받아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젊은이들이 단지 상향회 회원만으로서가 아니고 주일학교회원으로 또한 시민으로서, 교육적인 활동에 있어서 주님께 봉사하려고 하는 그 적극적인 뜻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창립 당초부터 지금까지의 교회회원들과 같이 부름에 잘 응하고 열심히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시옵시도록 기도합니다. 주님은 또 젊은 남녀들에게 문학을 제공하고 또한 그들에게 상향회에서나 그 밖의 직책에 임명하시는 책임을 갖고계서 젊은이들을 축복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알고계시는지요. 좋은 책이나 훌륭한 잡지는 마치 교제해서 섬으로 이끌어가는데 벗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출판물은 젊은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교회의 지도교사 및 선량한 남녀들에게 만나게 하는 기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와같이 좋은 친구들을 선택하는 때인 것입니다. 젊었을 때 기억한 모든 것들은 생애를 통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책을 갖고 그 좋은 책을 벗으로 삼는 것은 단지 현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그 경험에 또한 대중들 앞에서 그 사람의 사람 됨을 풍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헌스빈"에서 "오그든"에 집을 운반하고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2시간 반이나 걸리기 때문에 나는 항상 손에 소책자를 갖고 2시간 반 안에 많은 인용문을 암기 했습니다. 오늘도 나는 80년 전에 외운 이 인용문을 쓰고

있으며 이 좋은 벗의 일부는 아직도 나의 곁에 있습니다. 젊은이  
에게 있어서 셰익스피어, 스콧트, 레니슨 및 모든 미국의 최상의  
작가들 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일성도의 가정은 거의 인간들의 모든 활동  
분야에 있어서 도전받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은 단지 젊은이들  
만이 아니고 그들의 양친에 대해서도 신앙을 파괴하고 교회 활  
동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벗이나 동료로서의 독서물은 현명하게 택하지 않으면 안됩  
니다. 사람은 그의 동료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과 같이 그 사람  
의 교양의 깊이는 그가 읽은 독서물에 의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쁜 친구와 교제하면 자기도 모트는 사이에 그 사람도 나빠지  
는 것"과 같이 속된 책은 사람을 비천하게 만듭니다.

파멸로 이끌려 가는 한가지로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것은  
유혹당하기 쉽고 극히 죄스러운 그림이 그려있는 아주 비천한  
독서물인 것입니다. 오늘날 말일성도들의 가정에 결코 들어와  
서는 안될 속된 잡지들이 시중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나는 임프트브먼트 이러 잡지가 1965-1965년도 상향회의  
독서과정으로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든 가정이 이 잡  
지를 정규적인 독서물로서 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독서는 현대의 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아주 큰것으로서 우리가 좋은  
독서 습관을 장려 육성하는 것은 인류에게나 또한 교회에 있  
어서도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 "당신의 질문"

해답자: 12사도 정윤희 회장  
요셉 필딩 스미스

## 두려움 경의의 의미

질문: 시편 111:10, 112:1, 잠언 1:7절 등에 사용되는 경의(두려움)이란 말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반의 회원들은 왜 주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에게 자기를 두려워 하라고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답: 이들 성경 귀절은 자주 잘못 인식되고 있다. 질문해온 성구는 다음과 같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 토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어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상의 것과 비슷한 표현으로 사용된 귀절이 고대나 현대 경전에 여러곳에 있다.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 계시 가운데서 예를 들어본다면 76장 5절이 있다.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셨음이니 나 주는 나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의와 진리 가운데 끝까지 나를 섬기는 자들을 엄확롭게 하기를 즐거워하느니라.

베드로도 고넬료가 개종할 때 주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주심을 알고 놀라며 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의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도행전 10: 34-35)

우리는 주께서 자비로우시며 친절하심을 알고 있고 의인의 마음에 두려움을 이트키심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며 또 흔히 해석되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두려움을 품고 가까이 나아오라고 인간에게 명령하시지 않으심을 알고 있다. 악인은 대심판 일에 주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며 주께서 악인에게 노여워 하실 것이며 또 주께서 재림하실 때 악인의 마음에 무서운 공포가 가득 차리라는 것은 사실이다. 이 경전 구절들에 이야기된 두려움이란 순종의 정신과 관련이 있는 것이며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또 다른 별도의 것이다.

### 겸손한 경건

이러한 구절은 신앙과 순종의 원칙에 관련이 있는 것이지 두렵게 만들거나 공포와 같은 말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사전에 보면 두려움이란 말은 여러가지 해석으로 사용된다. 열거된 경전구절에 사용된 해석은 "경건한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라 하였고 열이 저술한 분석적 성경 콘코단스에 "두려움"이란을 보면 여러가지 의미가 기재되어 있다. 히브리말 "에마"에서 온 "공포" 히브리말 "파르다"에서 온 무서움 "이라"에서 온 경건 등이 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보면 열이 성경 번역에 사용된 이 구절들의 의미는 겸손한 경건을 뜻한다. 원어에 보면 이러한 의미와는 조금 다르나 열이 번역에 있어서 두려움이란 한 단어의 의미는 여러 곳에서 종합된 의미로 미루어 이해되어야

사랑과 겸손은 둘다 하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결배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요소이나 그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다만 겸손히 완전한 예배의 정신으로 큰 기쁨과 겸손심을 가지고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와같은 의미로 볼 때 "겸의"라는 한국어 번역은 알맞는 훌륭한 번역이라 믿는다. —역자주)

- \* - \* - \* - \* -

## “잊을수 없는 사람들”

1965년 3월 11일

이 영 범

1959년 3월 군대 생활에 떠들 아직 벗지 않은재 까맣게 탄 얼굴을 가지고 씨아들을 거쳐 나는 나성 국제 공항에 도착했다. 이른 새벽 비행장에서 나를 반가이 맞아 주신 분은 카 장노님이시다. 나는 그 분 밑에서 복음을 함께 전하다 헤어진지 만 일년이 넘은 때라 꼭 반가웠다. 그의 어머님태에서 한 주일을 머물렀다. 그의 어머니는 열두 자녀를 손수 길러내시고 또 남의 자녀들도 많이 길러내셨다. 누구고간에 한국 사람이 찾아가면"이분은 나의 코리안 아들이라"고 하신다. 마침내 때는 봄방학 때라 카 장노는 자기의 차로 먼길도 짧다하고 나성에서 푸토포 까지 데려다 주고 자기의 옛날 친구와 교수들을 소개해 주고 다음날 그 먼길을 홀로 돌아가셨다. 근 1500마일이나 되는 긴 길을 요란스럽게 소리가 나는 허름한 차를 몰고 시간과 금전을 바쳐 이국의 한 청년을 돌보아 준다는 사실은 복음에서의 뜨거운 사랑이 아니고서는 바쁘고 비좁은 이 세상



에서는 힘든 일이다.

그 후 카 장노는 한국의 최초의 선교부장이 되어 한국에 다시 돌아간 후 오늘도 굳건히 일하고 계시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하시는 일위에 함께 하도록 늘 염원하는 바다.

브리감 옌 대학교 교정에서 나를 반가이 맞아주신 분은 하이야 박사이다. 동약학 교수로 특히 몽고족에 전문적 연구를 하신 분이시다. 사무실을 둘러보니 너저분한 동양 고전이 가득 쌓여 있고 옛날 잡지가 다른 한 모퉁이에는 쌓여 있었다.

통 넓은 바지를 입고 허름한 코트를 입으신 모습과 어질고 침착한 성품은 마치 한국의 충청도 옛 열감을 방불케 한다. 집을 찾아가보니 한살 짜리부터 열두살 짜리 까지 오물 오물한 어린 아이들이 여섯이 되며 일본 노래를 공부하고들 있었다. 사모님은 상냥한 모습에 남편을 하늘같이 믿고 순종하며 아이들 기르기에 지성을 다하고 계시다. 그러고 보니 하이야 박사 와 그의 가족은 동양 사람이 되고도 남을 자격이 있는것 같았다. 차음 이분을 뵈은 이후 약 이년간 학교를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격려해주시고 마음에 감화를 더하여 주시고 동양 학생들을 돌보아 주시든 모습은 사년이 지난 오늘에도 기억에 새토우며 다갈을 수 없는 마음에 빛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감을 나는 느낀다.

학창 시절에는 누구나 경제에 큰 여유가 없다. 대개 역름칠 열심히 일하여 그 돈으로 일년 학비로 쓰며 대개 3년 내지 졸업반이 되면 연구실에서 또는 교수들 도와 가면서 약간의 보조도 받는다.

브리감. 영 대학교는 다른 대학과 달라서 입학하기전에 얼마의 돈을 저금해 두어야만 입학이 된다. 어느 해의 일이다 동생이 온다기에 집에서 온 돈과 합하여 내 동생을 위하여 학교에 저금을 해두었다. 그러고 보니 나 자신 쓸 돈이 많지 않은 것을 느껴본다. 보통날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에서 밤늦게 까지 공부하다 집에 들어와 보니 편지가 여러장 와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가운데는 한 편지는 송부인의 주소와 성명이 없었다. 무슨일인가하여 의심스러운 가운데 무슨 협박장이나 아닌가 하고 뜯어보니 흰 종이 한장이 들어 있었고 그 흰 종이와 더불어 백불자리 지폐 한장이 들어 있었다.

나는 신비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걸봉을 다시 보니 일부와 솔트레이크 시의 우편 취급소 인장만이 찍혀 있을 뿐이다. 어느 돈많은 실업가가 하나의 고학생을 위하여 자선을 베풀은 것이 아닌가? 아니 오히려 조그만한 월급에 여러 식구들 먹여가며 조금씩 저축한 돈을 이틈 모르게 이웃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한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누가 그 돈을 나에게 보냈는지 알고 싶었다. 그러나 알길이 없었다. 몇해가 지난 오늘날도 나는 알길이 없다. 아니 영원히 알 수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분은 내가 누군지 알것이다. 오히려 나 스스로 이웃에 갚아야 하고 사회와 민족에 보답해야 할 짐이 크다는 것을 나 스스로는 다짐하여 느끼어 본다.

학구 생활과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다 한군데서 누릴 수 있는 특성이 브리감 영 대학교의 학창 생활에 특징이다. 그 중에도 특유하게 내가 졸업하던 해에는 내가 다니는 교회의 감독이었던 류렛차 박사는 내가 졸업한 수학과 과주임이었으며 나의

직접 지도 교수였다. 이야말로 다른 곳에서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지도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졸업할 때에 우리 과에 열 한 사람이 있었으며 그 중의 한 사람만 빼놓고 다 외국 선교를 마친 학생이며 그중 여섯명이 나와함께 같은 와드에 다녔다. 우리들은 후렛차 박사와 함께 같이 공부하고 교회에도 같이 가며 상향회에서 같이 노래도 하고 연극도 하고 춤도 주며 다같이 먼곳에 연구발표를 청강도 하러 기차를 타고 간 일도 있으며 가장 거룩하고 엄숙한 신전 의식도 함께 간 일도 있었던 것은 오직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만 누릴 수 있었던 추억으로 나의 기억 속에 엄제고 남아 있다.

내 동생이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이런 말을 한 일이 있다. 형님이 가는 집마다 "몰론냄새"가 납니다. 무엇이 "몰론냄새"냐고 하니까 내 동생이 하는 말이 "그것은 친절하고 부지런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보기에든 옳은 관찰이라고 생각이 된다. 담배냄새가 나고, 술냄새, 오입질 냄새가 나는 것이 몰론냄새가 아니라 사랑과 이해와 협조와 신앙이 섞여 있는 것이 몰론냄새 같습니다.

미국에 온 첫 여름철을 한국에서 같이 복음을 전한 일이 있던 하근수 장노의 부모님 댁에서 지낼 기회가 있었다. 몰론냄새가 훈훈히 풍기는 그 가정에서 나 스스로 몰론냄새를 배우고 미국 생활을 익히며 가장 행복했던 미국의 생활의 첫해를 지냈다.

어린 아이가 출생하면 낳는 날부터 교회에 데리고 간다. 열두살이 되면 집사가 되고, 다시 교사가 되고 제사가 된다. 장노가 되면 선교사업을 하러 외국에 나간다. 2년내지 2년반 외국 선교를 마치고 돌아올 때가 되면 옛날의 걸 프래드들은 벌써 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한다. 결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신

전에서 결혼을 하며 학교를 마칠 때까지 부인은 손수 남편을 위하여 일하며 학비를 보태준다. 그러다가 아이를 낳게 되면 신혼 부부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

몰몬 생활의 특징은 가정 생활에 있으며 몰몬 가정생활의 특징은 부부의 애정 생활에 있다. 남편을 받들고 아내를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몰몬 가정생활의 특징이다. 아내가 밥을 지으면 남편은 그릇을 닦아 주며 시장에 가게 되면 물건을 날러 준다. 차를 탈 때면 공손히 차문도 열어 준다. 그와 반면에 여자는 남편이 지닌 신권을 하늘같이 믿고 신권의 권능과 남편의 의견을 절대 존중하며 복종한다. 그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한국 여자가 못따라갈 정도다.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가며 같이 가기도 하며, 같이 웃고, 같이 농도하며 같이 놀러도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 속에 꼭 젖어서 행복히 사는 것이 몰몬 가정이다. 이것이 언제나 나의 추억에 남는 하근수 부모님의 가정이었다.

솔트 레이크를 떠난 후 나는 일년에 한두번씩 대회 참석차 늘 방문하곤 한다. 지난 주말에는 브리감 엠 대학교의 한국 학생들의 특별 성찬식이 있으니 참석하여 이야기 하여 달라는 팔머 박사의 부락을 받고 다녀온 일이 있다. 모교를 방문하고 친구를 만나고 귀환 선교사를 맞나는 것도 즐거운 일이었지만 하근수 장노의 부모님을 뵈우는 것은 정든 옛 고장에 돌아와 친척들과 가족을 뵈운듯 꼭 즐거운 일이었으며 언제나 마음에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다.

오래곤 대학의 대학원 학창을 회고해 볼 때 언제나 추억에 남는 한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롭니 박사이다. 처음 오래곤 주에 갔을 때 첫번 학기를 그 집에 투숙할 특전을 갖었다. 그분은 20세 때에 불란서에 선교사업을 마치고 이차 대전 때

에는 일본도 가셨던 일이 있다. 품체가 크신분이 말이 별로 없으시고 진실하고 부지런한 분으로 학교에서는 소제부로부터 사회에서는 주지사에 이르기 까지 모든 사람들의 신임과 사랑을 받는 분이시다.

그분의 신앙은 눈이오나 비가오나 변함이 없으며 12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루같이 감독으로서 충실히 봉사해오신 분이다. 낮에는 학교에서 빠쁘시고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에는 교회 집회에 가시고 화요일 저녁에 야간 특별 강의를 나가시고 목요일 저녁은 군계룡 특별 강의로 나가시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밤과 낮을 교회에 바치신다. 오십이 넘으신 분으로 이만큼 활동하시는 분을 아직 나는 본 일이 없다.

먼 친척으로는 사도가 되시는 분이 있으며 가까운 친척으로는 미쉬간 주의 주지사와 브리감 영 대학교의 학생처장 되시는 분이 그의 사촌별 된다. 우연히도 하루는 나는 출판된 그의 부친의 자서전을 읽을 기회를 갖었으며 그 자서전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져 있었다.

"내가 40이 넘어 가주 대학에 박사과정을 받기 위해 갔을 때에 지도 교수는 대단히 실망한 낯으로 너같이 늙은 놈이 무슨 박사과정을 하러 왔느냐는 듯한 멸시의 눈치를 볼 수 있었다. 공부는 힘이 들었다. 가장 힘든 분야는 제이 외국어였다. 열살이 넘은 아들이 독일어 사전을 펼쳐 가며 나를 도와 주었다. 칠전팔도 하여 학위를 받게 되던날 그 보다 나에게 더 큰 영광의 날은 없었다. 무엇보다도 더욱 감격스러운 일은 나의 친구와 부모와 친척이 모인 앞에서 말씀하시는 지도교수의 이야기다. .... 나는 한 때 물몬이 가는 곳이 천당이라면 돈을 주고 오라해도 굳이 못가겠다고 생각한 때가 있으나 이제는 내 생각이 바뀐 어 물몬이 없는 천당이라면 차라리 가지 않겠다고 생각됩니다"

그 자서전의 마지막 장에는 그의 후손들에게 남기는 다음과 같은 감격적인 말이 쓰여져 있었다. "정절을 지키기를 네 육신의 생명을 지키듯 하라 음탕한 불결의 생활처럼 영혼과 육신을 파멸케 하는 것은 없느니라"

공주같은 사모님을 모시고 세 아들을 거느리시는 몸이 가정은 교회에서만 아니라 미국 사회의 모범적 가정으로 내 기억에 언제나 살아지지 않는 귀한 가정이다.

나에게 많은 감화와 감명을 남겨준 여러 스승과 교회 지도자 가운데에도 유난히 언제나 기억에 남는 분이 한분 계시다. 이분이 지닌 어진 성품을 가진 남자와 여자가 모인 곳이 곧 하늘나라 일것이라고 나는 여러번 생각해 본 일이있다. 그 분이 바로 어트빈 맥도날드이시다. 그의 형님은 여러 대학의 총장직을 거쳐 브리감 엄 대학교의 총장을 하신 일도 있으며, 은퇴하기 바로전에는 서구지역의 교육행정의 총책임자로서 미국 정부의 문교성에서 몇차례 손꼽히는 훌륭한 분이시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맥도날드 선생님은 자기 형님과 같은 사회직위를 가지신 분도 아니다.

본래의 소원은 농부가 되기를 바랬던 것이나 1930년 불경기 시절에 먹을 것을 찾기 위해 도시로 나온 것이 도시 생활의 시작이요 그후 고등학교에서 목공학, 물리학, 생물학을 가르치셨고 현재는 고등학교 교감 선생으로 계신다.

나도 아직 까지 이분이 지니신 표리가 다르지 아니한 진실성, 부지런한 것, 꾸준한 족보연구와 교회의 봉사활동의 변함없는 투지력과 인내심, 그리고 자비에 넘쳐 흐르는 인자하신 모습은 아무리 말을 잘하고 글을 잘쓰고 사회에 공헌한바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아직 찾아보지 못했다. 상항에 머무는 등

안 한 여름철을 이분과 그의 가족들과 함께 머물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서 하나의 큰 영광이요 축복이었다.

어느날의 일이다. 나는 저녁 일을 마치고 근 새벽 두시가 되어서 집에 돌아왔다. 밖에서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온 후 안에서 열쇠로 문을 잠그고 빗장을 질렀다. 나는 고단하여 즉시 잠이들어 버리고 말았다. 잠결에 어렴풋이 소리를 들은 때 도날드 선생은 벌떡 일어나셔서 문을 조사하시니 빗장이 질려 있는지라 얼듯 생각하시기를

내가 열쇠를 열고 들어오려다 안에 빗장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열지 못하고 못 들어온 것으로 알고 아닌 밤중에 옷을 갈아 입으시고 차고문을 열고 차를 내어 방안에서 깊이 잠든 이영범 씨를 찾으러 공원으로 바닷가로 밤거리를 헤메시는 것이다.

다음날 잠이 깨었을 때에 나는 오히려 빈망한 생각을 금치 못했다. 내가 상항을 떠나온지 벌써 일년이 가까워 온다. 그러나 인자와 성실과, 근면과 사랑에 넘쳐 흐르는 때 도날드 선생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으며 또 언제까지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 끝 -

1965년 3월 나성에서.

(주: 필자는 1956년도 최초의 한인 선교사로서 부산에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으며 부리감염 대학교를 졸업후 오래곤 대학 대학원을 거쳐 현재 나성에 모회사 자동계산기 기사로서 근무하고 있다)

(상호부조회 공과)

신 학

교리와 성약

제 64과 전쟁와 관한 예언

토이 다불유 독시 장노

교재 교리와 성약 86장과 87장

1965년 5월 첫째 모임을 위한 것

목적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이해하고 미국 남북 전쟁에 대한 조셉 스미스의 예언과 그가 참된 예언자임을 증명하는 그 후의 세계 정세를 배우기 위한 것

머릿말

이 공과에서 배울 두개의 계시는 1832년 12월에 주어졌다. 주님은 그 이전에도 여러번 이 신권 시대의 여러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장차 소란한 때가 오리라는 것을 계시하셨다.(교리와 성약 1: 11-17, 35, 5:15-20, 29:14-21, 45:26-44)

86장

1832년 12월 초에 조셉 스미스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는 계시를 받았다. 그 계시는 어떤 점에 있어서는 신약의 그 비유를 더욱 분명히 한 것이었다(마태 13:24-30, 37-43) 신약은 주님을 씨뿌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으나 그가 받은 계시에는 사도들을 씨뿌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 이 비유는 현



세대에 있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상의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할 사업을 이끌고 가는 자가 사도들이기 때문에 후자와 같이 언급된 것 같다. 사도는 구세주의 직접적인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주의 행위와 같은 것이다(교리와 성약 1장 38절)

곡식은 주님의 사도에 의해 씨뿌려지는 반면 가라지는 사탄에 의해 씨뿌려지고 그의 추종자들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비유에서 말하고 있다(마태복음 13장 38절, 교리와 성약 86장 3)

이 비유의 두 경전의 기록은 곡식을 저장하고 가라지는 불태우는 주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말한 것이다(마태 13장 39-43, 교리와 성약 86장 7절) 이 계시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 비유가 이루어지는 때가 이 말세라는 사실이다(교리와 성약 86장 4절) 복음의 회복과 더불어 씨는 다시 뿌려졌지만 추수 때가 될 때까지는 가라지를 뽑으므로써 곡식의 부드러운 잎사귀들이 상하는 것을 주님은 허용치 않으실 것이다. 또한 천사들은 "밭을 추수하기 위해 보내어지도록 미리 기다리고 있다" (상 5절)

### 현대의 예언자의 말

1894년 6월 24일 유타주 브리감영 시에 있었던 솔트레이크 신전 봉사자들의 간증회에서 윌포드 우드러프 대관장은 그가 시험으로 얻었던 말세의 몇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했다. "멸망의 천사"와 "곡식과 가라지"의 암시적인 언급은 86장의 맺세이지를 강조했다.

...나는 여기 모이신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내 눈앞에서 전개되는 밤의 시험을 보았  
또 이 세상에 막 퍼부어지려고 하는 커다란 심판을 보면서 이

시험들이 진실하며 그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 앞에 닥쳐왔음을 알면서, 그리고 그것들이 참됨을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 이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국가들에게 소리 높여 부르짖는 겐고의 말을 억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서 계속적으로 이 시험들을 볼 동안은 나는 겐고의 소리를 높여 외칠 것입니다.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지상에는 14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암흑의 구름이 온통 그들의 어깨를 덮고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닥쳐온 이 크나큰 재난과 심판에서 보호 받을 자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께 말하겠습니다. 신권의 명예를 높이고 축복의 값어치가 있는 하나님의 신권을 가진 자가 이러한 안전과 보호를 받을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만이 유일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도 이 심판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재난과 심판은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서 완전히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처럼 내릴 것입니다. 신권이진자 이외로는 그 노여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가라지와 함께 곡식을 거둬들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멸망의 천사들을 불들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는 이 멸망의 천사들은 천국의 문을 떠났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나라와 이 백성들 위에 버티고 있으면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지구위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재난과 두렵거리들이 세상에 증가하고 있으나 거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여러가지 문제들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무를 다하고 내가 나의 의무를 다한다면 우리는 보호를 받을 것이요 평화롭게 또한 안전하게 그 곤난들을 이겨나갈 것입니다.

니다. 결전과 계시를 읽으십시오. 그것들은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커다란 변화가 바로 문앞에 닥쳐 왔습니다. 20년 뒤에 여러국가들 간에 크나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늙은 내가 그것을 볼 수 있을런지 또는 없을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그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들 때문에 내 마음이 무겁고 이 자리에서 그것을 말해야 되겠다고 나는 느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힘에 의해서 구함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영 우매지, 1894년 제 5권 512-513면)

크나큰 변화가 20년 후에 발발된 세계 제 일차 대전의 시작과 함께 지상에 일어났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국가간의 불안은 증가했다. 국민끼리의 싸움과 전쟁은 희생자를 속출시켰다. 기술은 발전하여 인간을 보다 잘 파멸시키는 방법이 고안되었다. 그 때부터 천재도 또한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 위대한 약속

몇 가지 중요한 진리가 86장의 끝절 8절부터 11절까지에 주어졌다. 이 진리는 말일성도가 그들의 혈통에 따라서 사는 필요성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약속을 강조하고 있다. 성도들은 신권의 직을 통해 이스라엘의 집의 구도자가 되는 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신권으로 그들의 선조 때부터 그들은 이미 합당한 후계자인 것이다. 갑혹 어떤 사람은 말일성도의 이스라엘 혈통은 단순히 상징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런지 모른다. 그러나 이 계시는 우리가 <sup>9</sup>육체로 인하여(9절) 신권의 합당한 후계자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그들의 후손이 예나 이제나 복음과 신권의 관리자가 되리라는 약속을 받은 축복사의 실제 자손을 말하는 것이다(값진 진주 아브라함서 2장 8-11)에 언자에 의해 말하여진 모든 일이 세상을 위하여 회복되도록 하

기 위해서 말일에 선택받은 그의 백성과의 약속을 존속시킨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짐하셨다. 지구상의 어떤 다른 사람들도 이런 운명을 가진 자는 없다. 그 운명속의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나 이 말일의 역사는 중지되지 않을 것이다.

### 전쟁에 관한 예언

말세에 관한 예언자의 말이 이루어지려 한다는 모토나이 천사의 예언에 합당한 세계 정세에 주의하여 예언자는 당사가 말세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사건들을 기록했다. 이것을 적은 기록 중에 87장을 설명한 글이 있다.

국가간의 분규의 발생은 전에 교회가 황야로 여행해 가기 시작했을 때보다 요지음은 눈에 띄게 현저하게 되어간다. 코레라의 창궐은 지상 거의 모든 대 도시에 있어 두려운 것이 되었다. 그 역병은 인도에서 발생했으며 위대하고 장력함을 자랑하던 합중국도 직각적인 파멸의 위협에 직면했다. 남 카로나이나 주의 주민들은 의회에서(11월) 자기들의 주가 자유롭게 독립적인 국가임을 공포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33년 1월 31일 목요일을 전능한 하나님께 축복을 간청하고 자기네 국경안에 자유와 행복을 회복하도록 간청하는 겸손과 기도의 날로 지정했다. 웨슨 대통령은 이 반란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란을 진압할 충분한 군대를 소집하고 하나님께 일박하는 중대한 위기의 공포로부터 국가를 구출해 주도록 기원했다.

1832년 크리스마스 날에 나는 전쟁에 관한 아래의 계시와 예언을 받았다(교회 약사 1장 301, 87장이 계속한다)

그의 앞에 보여진 앞에서 말한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언약을 주재하는 세상의 상황 때문에 예언자는 합중국 내의 여러가지 정세에 깊이 근심하고 있었다. 전쟁에 대한 이 계시들(87)받기 일년 전에 두개의 다음과 같은 중대한 예언이 미국 남북전쟁을 예고했다.

너희는 먼 나라에 전쟁의 소리를 듣고 먼 나라에 곧 큰 전쟁이 있으리라고 말하나 너희 땅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너희는 알지 못하니(교리와 성 38장 29)

둘째 예언은 합중국의 제정세에 관련해 본다면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

너희는 외국 땅의 전쟁의 소리를 들으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쟁은 바로 너희 문앞에 가까이 있도다. 또한 멀지않아 너희 자신의 땅에서 전쟁의 소리를 듣게 되리라(상동 45장 63)

조셉 스미스에 의해 주어진 수다한 예언중에 말일의 전쟁에 대한 예언은 그가 예언의 능력을 가졌다는 강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대에 전하라는 부름을 받아(상동5장 10절) 그는 말일의 심판에 대해 두려움없이 말했다.

미국 남북 전쟁에 대한 87장의 아래의 요점은 예언자의 부름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1) 말세의 전쟁은 남카로라이나 반란과 함께 시작할 것이다. (2) 이 전쟁은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불행으로 끝날 것이다. (3) 남부 제주는 북부 제주와는 분리될 것이다. (4) 노예들이 그들의 주인에게 대항하며 일어나겠고 전쟁을 위한 훈련을 받을 것이다. 그 후에 일어났던 사건에 관한 예언의 원리로 역시 앞으로 고려하겠다.

위에 말한 예언과 1832년 12월 25일 이전에 주어진 두가지의 경고의 말씀(상동 38장 29, 45장 63절)에 덧붙여 1833년 1월 4일 뉴욕주 토체스터 시의 신문 편집인 웹. 씨. 시튼 씨에게 예언자는 이런 편지를 썼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따라 이렇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즉 머지 않은 장래에 함중국은 우리나라 역사에 유례가 없는 유럽의 장면을 연출하게 될 것입니다(교회약사 1장 315)

### 시일과 상황

전장에서는 예언자의 일지가 87장의 설명으로 인용되어 있다. 함중국과 세계의 다른 곳에서의 상황에 관한 그 기사에서 그는 남카로라이나 주가 독립주라고 선언하므로써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그 반란을 진압할 조치를 취했다고 기술했다.

남카로라이나 주의 그러한 사태는 어디서 초래된 것일까? 1832년 이 되기 수년전 남부의 경작자에게는 피해를 주고 북부의 공업가들을 보호하는 연방 관세법에 대한 불만이 남부에서 표명 되었다. 1828년의 관세법은 남부에서 증오의 관세법이라 불리워졌으며 1832년의 관세법은 이와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혐오를 가지고 취급하게 되었다. 이러한 불만이 남카로라이나 주로 하여금 연방 관세법을 무효로 하고 필요하다면 연방에서의 탈퇴도 불사하게 하였다. 잭슨 대통령은 1832년 12월 10일 무효의 성명서를 내었다. 그것은 어떠한 주도 연방에서 탈퇴할 것을 부인했습니다. 남카로라이나는 다른 주에게 지지를 호소했으나 그것은 성공하지 않았다. 버지니아 주와 조지아 주는 그 이유에는 중정적이었으나 남카로라이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

려하지 않았다(윌럼 비 헤슬틴 저 "미국사에 있어서의 남부 주" 198면) 위기는 점차 커졌으나 주간에 무력 투쟁을 이트킬 요소는 아직 없었다. 1833년 남북 양쪽을 회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87장과 같은 날자가 적힌 교리와 성약의 다른 장에서 예언자는 이렇게 기록했다.

주 하나님 의 이름으로 나는 예언하노니 인자가 오시기 이전에 많은 위험을 이트키게 할 곤란의 시작이 남카토라이나주에 있으리라

그것은 아마 노예 문제를 거쳐 생길 것이다. 1832년 12월 25일 이 문제에 대해 내가 열열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한 목소리가 내게 이것을 말하였나니(교리와 성약 130장 12-13절)

미국 남북 전쟁은 아마 노예문제를 거쳐 시작될 것이라는 것, 노예제도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전쟁의 일원인이 되리라고한 예언자의 예언을 주목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남북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많은 글이 쓰여졌었다. 어떤 사람은 노예제도만이 그 원인이라고 변호하고 다른 사람은 이것을 부정하고 또 어떤 사람은 노예제도는 표면적인 문제에 불과하며 보라 깊은 원인이 그 시초부터 내재해 있었다고 암시하기도 한다(에드윈 씨. 토즈윌 저 "남북 전쟁의 원인으로서의 노예제도" 1949년 간)

1832년에 받았기는 하지만 그 예언은 1851년 고가의 진주의 초판에는 출판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계시는 교회 회원들에게 잘 알려진 것이였으며 몇 사도들의 예를 따라 그것은 선교사업에서 사용되기도 했다. 윌포드 우드러프 장노는 그 반란이

일어나기 25년 전에 그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계시의 사본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연설집 14장 2) 1851년에는 남북전쟁이 임박했다고 믿는 미국인도 거의 없었으므로 더구나 1832년에는 그러한 것은 생각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역사는 예언의 이면이다

남카로라이나는 연방정부에 반란을 이트켰으며 1861년 4월 12일 찰스 통항에 있는 북군의 섬프터 요새를 포격하므로써 실전이 개시 되었다. 전쟁은 북부 22주와 남부 11주를 싸우게 했다(교리와 성약 87장 1-2,3절) 불행과 죽음이 그 잔인한 전쟁중 온 나라를 휩쓸었다. 주님의 예언자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뒤에 올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의 파괴를 알지 못했다. 그 전쟁의 비용은 대략 80억 달러를 추산되었으며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남부 제주는 영국에게 원조를 청했으나 영국은 분쟁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부군의 순양함이 영국 조선소에서 장비하는 것을 승락했으나 그것은 전후 연방 정부에게 1550만 달러의 손해 배상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남부는 또한 프랑스와 스페인에게도 원조를 청했으나 어느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대 전쟁의 시작

전쟁에 대한 예언은 전쟁에 관해서였다(교리와 성약 87장 1) 남북 전쟁은 지상의 전쟁과 재난의 연속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전쟁이 이곳에서 시작하여 열국에 퍼질 때가 오리니 이처럼 땅의 주민들은 칼과 유희에 신음하리라, 또한 기



근, 역병, 지진, 우뢰, 찌를듯 실얼한 번개를 겪으면서 하늘이  
명한 멸망이 열국의 완전한 종말을 가져올 때까지 땅 위의 주  
민들은 전능자의 분노, 분개와 벌주시는 손을 느끼게 될것이니  
라(2절, 6절)

남북 전쟁후 지구상의 여러국가들은 기근, 역병, 지진 그  
리고 전쟁에 시달렸다. 이 예언이 뚜렷하게 이루어진 것은 국  
내외의 전쟁이 종식한 1861년부터 일년도 못되었을 때였다.  
한 지역에서 의 충돌이 세계 제 일차대전이 되었고 영국은 자국  
과 연합국의 방위를 위해 다른 나라에까지 원조를 청하게 되었  
다(3절)

87장 3절 이하에서 볼 수 있는 그 예언의 나머지 부분에  
기술된 사건은 마침내 "열국의 종말"을 이끄는 남북전쟁 전후  
의 시기에 관한것 같다.

### 결 론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신권시대에 전하라는  
성임을 받았다(교리와 성약 5장 10절) 그는 미국의 남북 전쟁  
에 대한 많은 상세한 일을 예측했다. 역사는 그가 이러한 사건  
의 예고자임을 증명했다. 전쟁과 기타 다른 재난들이 남북전쟁  
의 모든 국가에 쏟아졌었다. 실제로 평화는 이 신권시대에 지  
상에서 쏟아졌던 것이다.(상동 1장 35) 전쟁과 환난은 그 때  
부터 지상에서 평화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지 않는가?  
예언된 바와같이 세상은 곡식이 모아지고 가라지가 불태워질  
준비가 되었거나 거이 될 단계에 있는가?

### 토론을 위한 질문

1.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와 윌포드 대관장이 말한 그 비유

의 적용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2.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는 당신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

3. 86장 8-11절에 의하면 말일성도는 어떤 방법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운명이 지워졌는가?

4. 1832년 12월, 왜 조셉 스미스는 세계의 정세에 대해서 주님께 간구했을까?

5. 87장의 첫 3절까지의 볼 수 있는 미국 남북전쟁에 관한 것 중 다섯가지 요점을 들라.

- \* - \* - \* - \* - \* -

### 방문교사 멧세이지

#### 교리와 성약에 의거한 생활의 진리

멧세이지 64- 나 주는 내가 말한바를 너희가 행할 때 약속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한바를 행치 아니할 때 너희는 아무런 약속도 받지 못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82장 10절)

1965년 5월 첫 모임을 위하여

목 적: 오직 주님의 율법에 순종하므로써만 약속된 축복이 오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교리와 성약 82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신성한 모든 진리 중,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은 불변하는 것들이다. 그 약속들은 신성한 율법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만약 우리가 주님이 바라시는 조건들을 따른다면 이 약속들은 완전히, 그리고 절대적

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열쇠는 순종인 것이다. 우리가 듣는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하늘에 있던 불변의 섭리인 하나의 율법이 있어서 모든 축복은 이것에서 풀려 나오며 —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 부터 받았다면 그것은 그 축복이 엄유한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인한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다(교리와 성약 130: 20-21)

순종은 하늘의 첫 율법이다. 그것은 모든 성취와 모든 성공의 근본이 되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입구가 되는 것이다. 신앙개조 제 3조에,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지만 승영은 율법들과 복음의 의식들을 따른다는 조건이 따르게 된다.

순종에 관한 흥미 있는 일변은, 우리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법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인정하며 그것에 따르려고 한다는 것이다. 예를들여, 우리는 전기의 힘을 이용하여 우리의 집을 따뜻하게도 하며 밝게도 한다. 그리고 기계 장치를 돌아가게 하며 우리들에게 편의를 주는 많은 것들을 장만한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전기가 움직이는 법칙에 응하여 일한다. 그러나 영적인 축복을 지배하는 율법에 관해서 자칫하면 우리들은 그것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것들에 순종한 결과가 그렇게 직접 혹은 즉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때때로 의문을 품거나 주저하곤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영적인 율법들은 자연법이나 마찬가지로 실제적이며 분명한 것이다. 모든 축복은, 그것이 영적이든 세속적이든, 율법에 그 기반을 확고히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순종하는데 좌우되는 것이다. 순종은 신앙처럼,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의 원숙함을 나타내고 우리의

겉손함과 양순함의 구체적인 증거를 줄 수 있는 것이다.

겉허와 극기에 관련해서 순종하는 능력에 관한 인상적인 예는 구약성경의 시리아 군대의 대장이었던 나아만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나아만은 위대하고 존경받을만한 분이었으나 문둥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서운 병도 고칠 수 있다는 예언자 엘리사에 관하여 들은바 있었다. 그리하여 그 대장은 엘리사에게 가서 그의 축복을 빌었다. 이에 그 예언자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일곱번 씻으면 그의 몸이 완쾌하리라 하였다. 이 강한 시리아인은 이렇게 단순한 지시에 실망하고 말았다. 그는 엘리사가 병을 고치기 위하여 좀더 극적인 어떤 일을 하리라고 기대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종은 나아만에게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 트시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던라"라고 말하였다(열왕기 하 5장 1-4)

이 이야기는 순종의 능력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축복으로 가는 문을 열뿐 아니라 그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나타내 보여 주는 것이다. 구세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요한 14:21)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안에 거하리라(요한복음 15장 10절)

우리를 위한 그의 자비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만약 순종하기만 한다면 사랑과 지도와 축복을 보증하는 율법과 계명을 주셨던 것이다.

참으로 주님은 그가 말씀하신바를 우리가 행할때 약속을 주시나 그가 말씀한바를 행치 아니할 때 우리는 아무런 약속도 받지 못한다.

- \* - \* - \* - \* -

### 봉사의 모임

#### 제 8과 서로의 친목은 행복의 기본적인 요소

윌리 후레드 씨 자인 저

목적: 친교를 통하여 가족 혹은 친구들의 상호 이해의 필요성을 지적할 것.

#### 5월 둘째 모임을 위하여

인간의 어떤 집단 내에서 피차간에 조화를 이루는데 있어서 좋은 교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 그가 원하는것 그가 맡고 있는것 그가 희망하고 있는 것을 명백하게 서로 알고 있지 않는다면 오해와 유감과 분노와 갈등과 원한으로 심각한 싸움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약자의 관계가 완전히 절교 될런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소통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아기에 있을 때에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끊임없는 주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분한 주의 또는 관심은 어린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배우고 그들의 사상 및 발견을 다른 사람에게 발표할 필요

를 느끼기 시작할 때에 그들의 일생을 통해 형성될 기반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주의를 집중해서 경청하는 것과 참된 관심을 갖는 것은 잘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부모님의 그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일에 관해서 특히 알고 느끼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 같이 너무 분주하여 어린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는 교통코자 하는 희망은 단절되고 문은 닫히고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문제와 욕망을 말하고자 열망할때 문은 숲사리 열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은연중에 부모님들의 무관심한 태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중심사상을 발표하기를 꺼려 하게 됩니다. 위기를 통하고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로서 서로 의사의 소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충동적이고 민감한 열기 왕성한 젊은이들이 가정에서 서로 의사의 소통을 갖기 위해서는 양친의 인내와 온정과 온유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하여 부모님들이 그와 같은 길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비록 환경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서로 의사의 소통이 있는 한 언젠가는 그들의 사랑이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소통이 끊어진다면 부모가 갖고 있는 여하한 감동력도 잃게 되며 또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될런지 모릅니다. 자식과 의견이 합치되지 못한 채 살아갈 때는 부모가 오직 인내와 사랑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많은 잘못을 어린이가 저질르는 것은 부모와 절교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반드시 그들에게 관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 스스로가 일을

해결하는데 있어 자제심을 가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코 그 문을 닫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통신 열락망을 펼치는데는 많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 1. 가족 회의

가족의 <sup>회</sup>각원이 올바른 처신, 계획성 있는 일, 책임성 있는 일과 사물을 잘 정돈하기 위해 이 회의는 있어야 합니다. 이 가족회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인 장소입니다. 자기의 의견에 대하여 타인의 반격이 가해지리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소신을 발표하는데 있어서 자유스럽지 않으면 안됩니다.

### 2. 부모 회의

바쁜 생활에 쫓기다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계에 관한 문제, 차의 사용, 참 사회적 참여, 자녀교육에 관한 문제 등 모든 문제를 토의할 시간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상의하기 위하여 특정한 시간을 갖어야 하는 것입니다.

### 3. 회식

적어도 하루에 한번쯤은 가족들이 잘 마련되어진 식사를 단란하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해야 하겠습니까. 온 가족들은 이때에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논쟁적인 문제가 나올 때는 다른 기회에 돌리고 이 시간을 매우 기쁘고 행복스러운 기회를 만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현명한 어머니는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할 전통을 갖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계획 하여야 합니다.

#### 4. 계시판과 고시

어느 가정이나 칠판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간에 알려야 할 사항(가족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그 대로 지나쳐 버리는 수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엄마 나 시장에 갑니다. 3시에 돌아 옵니다"

"메리야! 난토에 국남비틀 5시에 올려 놓아라 잘 부탁한다"

"아빠 감독께서 전화로 7시에 와드에서 만나고 싶다고 말 했어요" 이 와같이 일상적인 일이라도 중요한 전달 사항이 전해 지지 않는다면 불행을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 5. 가족 기도

보통 아이들이 지나치게 교훈적인 말이라고 꺼려하는 멧세 이지틀 능숙하고 아름답게 기도의 말씀에 포함시켜 전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유혹에 들지 않도록 아이들을 강하게 해주옵소서" "서토가 비판하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틈이 보다 더 선 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들 사이가 원만하게 되도록 해주옵소서" 이 멧세이지는 시험을 당하는 중요한 때에 마음에 되 살아 나게 될 수 있으며 필요한 장소와 때에 따라서 힘을 주 게 되는 것입니다.

#### 6. 개인의 노트

이것은 행복한 교통의 방법입니다. 감사 또는 상기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말을 도시락 보자기 안에 써서 넣는 다든지 또는 밤에 베개 밑에 써서 권으로 꽂아 둡니다. 이것에 의하여 부부간이나 부모와 자식간에 따뜻한 감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아 무척 미안하구나 내가 네게 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개학을 축하한다. 만일 네가 선생님을 좋아하면 선생님도 역시 너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 7. 취침 전의 방문

자녀들은 성숙했을지라도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의 잠자리를 돌르게 될 때에 그들의 등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의 피곤해진 팔을 땀싸아지 해주세요 그러면 그들의 기분이 누구러지며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가벼운 노래를 불러 주세요 또한 심중에 있는 말을 서로 주고 받으세요. 이것이 하루의 일과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가장 행복한 의사의 소통입니다.

- \* - \* - \* - \* -

## 문 학

### 문학으로서의 성경

제 8 과      성서 문학에 있어서의 중요한 주제의 예와,  
우리들 생활에 성서가 미치는 영향.

1965년도 5월 셋째모임을 위하여

목적:      성경에 있는 몇가지 중요한 주제의 관계를 우리  
들 생활에 암시할 것.

"나사렛의 마리아"

지난 공과에서 우리들은 최초의 여성이며, 인류의 어머니인 "이브"에 대하여 생각해 왔습니다.

이번 공과에서는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

해 보기도 하겠습니까. 마리아는 고토의 기쁨과 심원한 슬픔을 맛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유대"의 한 왕가의 혈족이었으나 신분이 낮은 나사렛의 처녀로 자라서 목수인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마리아"의 놀라움을 거의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여자 중에 네게 복이 있도다"라고 축복했으며, 마리아의 사명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알아 들은 후에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갔으며, 아들 "사무엘"을 얻으리라는 축복을 받았을 때 기쁨에 넘쳐 노래를 불렀던 한나의 그와같은 승리의 노래로서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사촌인 엘리사벳의 집에서 마리아가 석달을 머물고 돌아온 이후에 "요셉"의 고상한 인품은 마리아의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두고자 했다"는 사실로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꿈에 요셉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의 그와 같은 상태는 영광과 기쁨인 것이며 부끄러워 하거나 탄식할 일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그 여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물론경, 니파이 1서 13-21에 있는 말씀으로, 니파이는 시험으로 동정녀 마리아와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그가 본 바를 질문 받았을 때 한 사람이 처녀가 보이는데 이는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처녀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의 생애에 있어서 몇가지 사건은 그의 어머니에게 현저한 영향을 미쳤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예로서 "마리아"와 "요셉"이 애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을 때입니다.

죽기전에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지기 를 기다리고 있던 믿음의 충만한 시므온은 애기 예수를 안았습 니다.

시므온은 애기 예수를 안았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 졌음을 인정했습니다.

그 때야 말로 젊은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있어서 자랑스럽고 도 행복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누가 2:25-34)

그러나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마리아는 가장 큰 슬픔을 맛보았습니다.

시므온 까지도 예수와 마리아의 고통을 알았으며 마리아에 게 말하기를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누가 2장 35)

사실은 이 일 이래로 수년동안 여러번 마리아는 찌르듯한 고통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예수"가 소년이였을 때 마리아는 예수를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했으나 성전에서 헨자들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찾 아 냈을 때 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팔에 안았을 때 무척 안심했을 것이며 그것은 순수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와같은 초기에 이미 두 사람의 생활은 그가 가진 신성한 사명 때문에 서로 갈라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은 마리아는 그의 어머니이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라는 사실을 마리아에게 분명히 알리게 한 것입니다.(누가 2장 42절-50절)

예수님께서 특이한 교리를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기 시작할

때 며칠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오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거짓의 말을 할 때 마리아는 괴로워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님을 보고 또 그들의 병고침을 볼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권능을 기뻐했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 가셨습니다.

십자가 가까이에서 그 참담한 사건을 목격했던 사도 요한은 슬프게 그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근처에 있었으며 예수님께서 고통을 참으실려고 애쓰시는 것을 볼 때, 어머니로서의 그녀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때에도 예수께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을 알고 후에 마리아는 다소 위안이 되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와같은 슬픈 시련에 있어서는, 마리아에게 의지할만한 무엇이 필요하리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신 것 같았으며 친구인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한 제자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요한 19: 26-27)

수년동안 전도사업으로 집을 떠나 유랑의 생활을 하다가 피한 예수님은 모성애의 강함과 순수성을 재인식했으며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그와같은(요한에게 어머니를 모시게 함) 일을 하심으로써 자신을 땅에 매어두는 신성한 일을 수행했습니다. 참으로 참된 여성으로 구현하는 극치 즉 모성의 신성한 유대를 더 이상 높이 인정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 앞으로 어떻게 기록되는지는 몰랐

지만,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행함으로써 가진 신앙과 겸손을 보였습니다.

히브론으로 여행할 때에 힘과 정직을 보였으며 기쁜 감사의 마음과 행복한 노래를 불렀으며 아들인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 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에 새겨 들음으로서 충성과 신심을 보였습니다.

마리아에 관하여 성전이 말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마리아는 가장 친절하고 충실하고 겸손하고, 참을성 있고, 자랑스러운 여자라고 표현되어 왔지만 어디까지나 마리아는, 인간이며, 또 여자인 것입니다.

성경책에 있는 몇 가지 주제에 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전체적인 주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은, 태초부터 계속해서 질문되어 왔습니다.

세상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신가?

그를 믿을 수 있을까?

인간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그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상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인간과 구세주에 대한 인간의 노력과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주제와 병합시켜, 위대한 주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화제는 의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하는 즉시 이를 타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옳으며, 완전하며, 성실하며, 진실한 책입니다.

성경에 있는 몇가지 특별한 주제

위에서 언급된 바 있는, 이 평범한 주제는 욥기에 나타난 인간의 고통이나, 시편에 묘사된 천지자연에 주어지는 영감,룻기에 나타난 충성이나 순증, 잠언에 쓰여 있는 예로서의 생생한 교훈등으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룻기나 에스터서가 구조나 주위환경이나 성격면에서 밝은 점은 없지만, 이들 둘은 같은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에스터가 왕후였던 반면, 룻은 한 농촌의 여자였으며, 룻기에 묘사된 모든 말은 농촌의 배경이나 생활을 간단하게 나타낸 해설제인 전술시입니다.

에스터서에 나타난 말들은 극적동기와 현대작품의 불안을 그린 하나의 각본입니다.

룻기와 에스터가, 800년이란 시간적인 거리가 있지만 이 두 작품은 쓰라린 시편 가운데서도 고결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평범한 것입니다. 보통 인간은 풀이나 꽃에대한 주제 못지 않게 이런 것에도 실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룻은 부모님께 대한, 효성과 헌신과 용기와 자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의 친척에 대한 진실한 마음의 아름다움 이야기는, 시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반감을 없애주는 훌륭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같은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확목치 못한 생활을 확목하게 해주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에스터의 이야기는 보다 큰 세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터가 그 어려운 일들을 용감하게 한것의 댓가는, 그 당시 변

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들 마음까지 사로 잡으며, 뜻깊은 나라의 보상과 같은 종류의 것입니다.

에스터 서에서 우리들은, 제왕의 위풍과 전제군주의 권능과 격렬한 욕정과, 음모를 꾀하는 노예근성과 잔인한 보복등을 의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어둡고 폭풍이 이는 바닷가에 아름답고, 분별있고 용기있는 한 젊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암흑의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바다에서 아름다움과 분별과 용기를 천성으로 가춘 한 젊은 여인은 풍랑이는 바람을 잡자게 하여 그의 배성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터의 이야기는 고결하고도, 부드러운 묵상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에서 쉽게 기억할 수 없는 잡다한 행동들, 또 뜻밖에 일어나는 사건들, 기억에 남지 않는 사소한 행동, 한마리의 새가 땅에 떨어지는 가운데, 지구가 열매를 만들어 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 계시다는 증명인 것입니다. 에스터의 말 가운데 하나님이란 말은 한 마디도 없으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점으로 보아 옴기는 성서에 있는 가장 위대한 저서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주제들은, 극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암흑과 곤궁에 빠져 재더미 위에 앉아 있는 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옴은 쓸쓸했으며, 친구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정직했으며 친구들에게 충신했습니다.

그 때는, 하나님 까지도 옴을 버리신 것 같았지만, 실망이란,

전쟁에서 승리하여 괴로움의 저편에서, 선과 의를 지킬 수 있도록, 그는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열적인 생활을 하는데, 아주 큰 법이 있으며, 하나님께 대한 참된 봉사는 결코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으로부터의 충성이며 하나님 면전에 있고자 갈망하는 것이며 손해와 징벌에서 구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손해와 징벌은 그 뜻이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신성한 것과 굳게 맺여 이 세상의 암흑과 어려움에서 한층 높은 빛과 사랑으로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 되는 주제는 어떤 시대에도 누구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가운데는 한 사람 인간의 영의 발달하는 의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걸작 읍기의 저자의 심장은 세상 사람의 심장과 하나같이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포는 조금도 눈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험악하게 내다 보고 있으나 모든 것에 직면하여 세상의 수수께끼를 푸는 참된 해답은 자신이 모든 것을 처리한다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심오한 신비의 깊이로부터 한소리가 모든 인류를 위하여 "나의 구세주는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문학의 많은 구절을 비치고 있는 빛중에 이것 보다 위대한 빛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주제를 우리들 생활에 적용하기

이상에 말한 성서의 위대한 주제가 이와같이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지게 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마음깊이 있는 인간적인 정서나 신적인 정서에 강하게 부딪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룻이나 에스터나 요셉이나 모세나 욕이나 예수가 그들 자신



에 부딪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였는가를 배움으로서, 우리들 자신에게 부딪친 문제들의 여러가지 생활에, 미친 공헌으로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세개를 인용해보면:

1611년 출판된 흠정역 영어 성경에서, 제임스 왕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지할 때에 성경은 우리들을 가르쳐 주며, 길을 잃었을 때에 집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며, 잘못했을 때에 고쳐주며, 의로움에 시달릴 때 편안하게 해주며, 활기가 없을 때에 위기를 북돋우어 주며, 주위가 냉담할 때에 훈훈하게 해줍니다."

나포레옹 일세는 성경책을 읽고서, 성서는 비단 한 사람의 마음만 움직이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며, 성서가 인도해 주는 대로 따를 때면, 우리들의 영혼은 결코 해메지 않을 것입니다.

영국 작가인 러스킨은 다음과 같이 충고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을 읽으십시오,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매일 매일의 과업으로 삼으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에, 알고 있었던 성경의 지식은, 문학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보조 교재

1. 현재 우리들의 생활에, 발전한 계기를 만들어 주는 아주 중요한 주제의 이야기나 부분을 성경에서 선택하십시오.
2. 과거나 현재에 국내에 계신 분들로서, 성경의 영향을 받아 위대하게 된 분들의 간증을 부가 하십시오.
3. 어제까지 성서는 어떻게 당신을 돕고 있었습니까?
4. 당신이 의우고 있는 성경구절을 암송하십시오.

사 회 과 학

하나님의 율법과 교회 행정

교회 행정의 기능

아리엘 에스 발리프 저

제 21과 인간의 마음의 평화

1965년 5월 넷째 모임

목 적 이 지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교회 행정의 기능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할 것.

이 세상에는 사람의 마음 속에 존재하고 있는 질투, 적의, 이기심이 항상 하나님의 왕국으로 알려진 이상적인 사회의 건설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회자나 조동자가 무엇이라 말한 다 할찌라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사명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죄와 악을 제거하고 평화와 선의의 훌륭한 사회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데비드오. 메케이 대관장 교회 세손 1964년 1월 25일 2페이지)

평화와 선의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태도란 주어진 상태에서 신뢰할만한 방법으로 행동하려는 자세입니다. 태도란 기쁨과 만족과 바라는 결과를 조래케 하는 일련의 경험을 통하여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도는 연구, 인간과의 접촉, 및 사교를 통하여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이나 의견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말하는 것 보다도 행동하는데 보다 더 정확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 종교적인 태도

각 개인의 참된 종교적인 태도는 교회의 가르침에 관련된 그의 행동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어떤 사람이 교회의 회원이라는 것, 요셉은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것, 및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증거한 후에도 그 사람이 예언자에 의해서 주어진 계시된 율법을 무시하면 그 사람의 강한 간증은 그가 언급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 가운데서 이와 비슷한 상태를 발견하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15장 7-8절)

이것은 특별한 계시에 적용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대한 모든 행위를 정직하게 계시된 훌륭한 생활의 모든 원칙에 의해 충실히 생활하므로써 모든 상태의 진리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 교회행정의 목적

교회행정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 인류의 생활의 방향을 제시해 줌으로서 그들은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공과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신성한 율법하에서 교회는 가정을 통하여 적절한 모범을 보이도록 최대의 책임을 주었습니다. 부모들은 구세주의 가르침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 영향 밑에서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드리고 동포를 사랑하는데 적용한다든지 하는 생활태도를 성장시켜서 이것이 그의 생애를 통하여 지속하는 것입니다.

교회 통치의 둘째 되는 중요한 책임은 회원들에게 올바른 사회를 육성하도록 지시하는 것입니다. 교회 및 교회 봉사는 이것을 육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각 회원의 물질적인 이 세상에 있어서의 복지가 관심을 갖게 되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빈곤이나 실업을 없앤다는 것은 책임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건강 레이크레이숀 및 교육은 동시에 교회 회원의 육체적인 현세적인 복지에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로 중요한 책임은 모든 회원의 지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영적 진보와 지적 성장은 다함께 발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올바른 태도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위에는 세 가지 책임의 적절한 작동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 환경의 힘

공자의 네 개의 경전 중 최초의 경전 대학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된 지식을 성취하면 그 목적을 성실하게 가지며 그 목적이 성실한 것이 되면 마음이 올바르게 되며 마음이 올바르게 되면 자신이 수양이 되며 몸을 닦으면 가정을 바토 잡고 가정이 바토 잡게 되면 나라의 질서가 집히고 나라의 질서가 집히면 이 세상에 평화가 찾아온다. 즉, "지 지식 의정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입니다.

황제로부터 평민에 이르기 까지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몸을 수양해야 합니다. 기초가 흔들리게 되면 그 위에 세워진 건조물은 결코 안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 줄기가 가늘고 약한데 가지가 무성한 나무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 왕국의 회원들의 훈련장입니다. 만일 가정이 그 기능을 수행한다면 평화와 신의의 근본적인 태도가 설립되

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는거와 같은 한정된 기본 동기가 교회회원의 공동체에도 존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가정이 그 기능을 수행할 때(교리와 성약 68: 25-26)와드는 사랑과 이해를 낳게하는 이상적인 장소가 될 것입니다. 구세주의 가르침은 단지 우리들의 마음에 아름다운 이상을 깨우쳐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복음의 원칙이 각 회원의 생활에서 기능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노력은 자신의 것이어야 합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배워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선물이나 유산으로서 지혜나 학식이나 아름다운 인격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어서나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자신을 완성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완성한 수준 이상을 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보웬 알버트 이 1948년 4월 5일 대회보고 91페이지)

인간의 성숙은 경험과 상호간의 교우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어진 앞길을 선처해 가는 경향은 그 사람에게 훌륭한 생활의 원칙이 어떻게 잘 그리고 효과적으로 자주 주어진 것인가에 달려있습니다. 훈련과 이해없이 어떠한 미덕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성실한 표준이 명확하게 확고한 방법으로 계통적으로 주어지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좀체로 성실하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정절, 친절, 정의 충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진실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구세주의 생애에 성격화된 어떤 특징이며 각개인은 그의 마음에 평화와 선의를 성장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며 확고한 것입니다.

무력은 무익한 것

수천년 동안 인류는 파괴적인 기계를 발전시킴으로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해왔습니다. 날카로운 돌, 칼, 창, 도끼, 화살과 같은 손으로 사용하는 간단한 무기로부터 거대한 미사일을 적에게 돌려 발사하는 강력한 장치까지 전쟁의 가장 파괴적인 무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항상 발명의 재능이 소비되어 왔습니다.

폭발력의 진보에 수반하여 한발(한방)에 수천 수만의 인류 또는 도시를, 파괴할 수 있는 이전에 미처 꿈에도 꾸어보지 못한 위력이 출현되었습니다. 이러한 무력 성장에 수반하여 인간의 마음은 공포로 차왔던 것입니다. 국민은 최상급의 과학자와 부를 사용하여 보다 효과적이며 정확한 파괴의 수단을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열강은 서로가 다른 나라의 무장의 강화를 질시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장 경쟁의 결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국민사이의 의혹, 증오 및 질투심을 증가시키는 것 뿐입니다.

### 이웃을 이해할 것

이 국민들 간의 투쟁에 있어 인간을 자연적으로 친밀하게 하는 기술적인 발전에는 일부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야 사람들은 수시간에 지구를 일주할 수가 있습니다. 산이나 바다도 장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지구상의 다른 어떤 사람들 보다 이웃사람과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웃을 이해하는 것은 우정관계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보다 우정적인 사람들에게 보다 큰 평화를 위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도 교회는 전세계의 사람들에게 정의를 원치 않고 평화적인 이해를 가르치는 대부분 젊은 남녀들로 된 약 12000명의 선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이 지상에

서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은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라디아서 5:22-23)는 것을 보여주며 인간의 생활에 있어 사랑의 가치를 스스로 가르치고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선교사들은 그들의 가르침의 진실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가정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들은 모든 말일성도의 가정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효과를 시범해 줄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하나님의 율법은 평화로 인도

하나님의 율법의 작용인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의 마음가운데 평화와 선의를 가져다 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곳은 별다른 길이 없습니다. 평화는 명백한 양심, 이성과 지혜 및 하나님께 대한 신앙 또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의 산물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서로 협조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한 결과입니다. 평화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고, 열심히 노력하고, 보다 희생적으로 그들의 모든 자원을 하나님의 계획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평화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복지를 생각할 때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려는 동기가 그의 후진력으로 되어 있을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 평화의 환

평화는 인생에 있어 용이한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던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는 모범에 의하여 지시된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쁨과 열광은 그의 재능과 경험과 힘을 인류의 복지와 진보를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오게 된 것입니다. 그가 기적을 행할 때 병에서 낳게 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을 누구에게나 말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는 그를 적대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하늘의 군세를 불러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짓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사랑과 친절로서 무력에 대면한 것입니다. 그는 그를 잡으려는 토마 병사의 귀를 베어낸 베드로를 질책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상처입은 그 병사의 귀를 율래와 같이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는 항상 이와 같이 그를 경멸하고 학대한 사람에게 선행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피로하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격려하고 고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권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완성이란 창조자에 의하여 마련된 인간의 목표입니다. 아담의 시대 에녹의 시대 그리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또한 니파이 4서가 기록될 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던 주변에 있던 사람은 완성의 경지에 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올바른 원칙을 배웠으며 선택의 자유로서 완전한 지식을 얻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미덕(잘못을 옳게 깨닫고 의로운 것을 택함)은 존재했던 것입니다.

어떤 세대에 있어서도 기만이나, 선망, 이기심, 그외 인간의 약점이 사람들의 지식, 이성, 신앙을 기만할 때 이러한 불의한 행위가 영향을 미쳐 그들이 결정을 하는데 표준에서 이탈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상태에 있어 평화와 선의의 근본적인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상실 되는 것입니다.



요 약

이제 우리는 과거 3년동안 우리들의 공과 "하나님의 율법과 교회행정"의 요점을 뒤돌아 봅시다. 우리들은 여러분께서 사람들에게 위임한 하나님의 권능인 신권을 통하여 교회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과 그 기능에 관해서 검토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교회 통치의 목적은 창조자의 목적 "보라 이것은 나의 일이니 나의 영광 즉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니라"(모세서 1장 39) 한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할 규범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의 일생의 모범, 이 지상에 있어서 그의 모든 행위의 동기는 첫째로 위대한 계명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태 22: 37-40) 하신 말씀을 실지로 행하는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요한 14장 27)

그의 평화는 그가 인류를 위한 봉사에 있어서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성취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 오게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그가 이웃에게 행한 선행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몇번이나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평화를 알려고 한다면 그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로통을 위한 고찰

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간증에 대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2. 마태복음 15:7-8 에 인용되어 있는 "마음 내게서 멀도다"란 무슨 의미입니까?
3. 교회행정은 회원의 공동 생활환경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4. 하나님의 왕국의 가치있는 회원으로 형성하는데 가족의 영향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5. 사람의 마음에 평화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사랑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6. 평화를 발전시키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 참 고

신약성서 마태복음 22: 24장, 요한 14장, 15장

신앙개조 탈메지 저 24장 부록 24 525페이지.

- \* - \* - \* - \* - \* -

### 3월달 침례자 명단

- 청운지부: 이 연숙
- 서부지부: 장영자, 송양숙,
- 성동지부: 이성교, 이정길, 남궁안자, 김양숙, 강유태,  
이도호, 주명숙.
- 대구지부: 박옥희, 조규태, 정연서, 홍선하, 김동채.
- 삼척지부: 이민관, 주명숙.
- 부산지부: 이옥순, 박성용, 임혜경.

표지 설명

골든 비 힙크리 — 12사도 정윤희 회원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宣敎部

(住 所 錄)

- 宣敎本部}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73-3995  
三清支部}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5번지  
72-3596  
城東支部}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락동 산12의 24번지  
西部支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58의 1  
73-1208  
大邱中央支部} 대구시 삼덕동 2가 24번지  
2-6659  
釜山支部} 부산시 동대신동 3가 95번지  
2-1371  
東區支部} 부산시 동구 수정동 658의 10

성도의 벗

發行人 卍 卍 개 일 이 · 카  
編輯人 具 重 植

